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동향](#)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미국 주식 저가 매수 전략, 이번에도 먹힐까?
  - ◇ (POLL)-한은 다음 금리 인상은 11 월..내년 소폭 추가 인상도 예상
  - ◇ (시장진단)-코스피 완전한 하락세, 연저점 가시권.."유난히 추운 겨울" 오나
  - ◇ (칼럼)-7년차 한은 총재 발언에 길이 있다
  - ◇ (시장진단)-달러/원 1200 원 초읽기..시스템 리스크 징후인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가 중의원에서 총리에 선출된 직후 의원들의 박수 속에 일어서서 인사하려 하고 있다. (로이터/김경훈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8일 증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94.6	-0.5%	-9.1%	+6.5%	유로	1.1567	-0.2%	-5.3%	+8.9%
100엔 대비	1,066.2	-0.3%	-1.4%	+1.1%	엔	112.22	-1.0%	-8.0%	+5.2%
유로 대비	1,384.3	-1.1%	-4.2%	-2.3%	위안	6.4480	0.4%	1.2%	+6.7%
위안 대비	185.72	-1.4%	-10.4%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746.25	1.2%	13.5%	+7.2%
코스피	2,956.30	-2.1%	2.9%	+30.8%	나스닥	14,579.54	0.1%	13.1%	+43.6%
코스닥	953.11	-3.1%	-1.6%	+44.6%	S&P500	4,391.34	0.8%	16.9%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37.97	1.1%	-3.7%	+19.8%
국고채 3Y	1.701%	6.8bp	72.5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2.049%	8.8bp	71.4bp	-14.5bp	미국채 2Y	0.320%	5.4bp	19.9bp	-144.0bp
국고채 10Y	2.374%	11.6bp	66.1bp	+3.0bp	미국채 10Y	1.612%	14.7bp	70.0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79.35	4.6%	63.5%	-20.5%	한국 5Y	20.7bp	1.1bp	-1.3bp	+0.1bp
금(현물)	1,756.67	-0.2%	-7.4%	+25.0%	일본 5Y	18.5bp	-0.1bp	3.5bp	-4.5bp
TR상품지수	3,137.02	2.5%	17.1%	+7.8%	중국 5Y	52.1bp	5.3bp	24.0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10월 11일(월)>

- 공휴일

### <12일(화)>

- 한은,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 정례회의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0월호) 발간 (10:00)
-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WEO) 발표(22:00)

### <13일(수)>

- 통계청, 9월 고용동향(08:00)
- 한은, 9월중 금융시장 동향 · 8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14일(목)>

- 한은, 9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금감원,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기재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10:00)
- 금감원,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한은,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15일(금)>

- 기재부, 10월 최근 경제동향(10: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10월 11일(월)>

- 미국 9월 고용추이 (23:00)
- 대만, 미국 휴장

### <12일(화)>

- 일본 9월 은행대출 ·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미국 9월 NFIB 기업낙관지수 (19:00)

### <13일(수)>

- 중국 9월 수출입 지표
- 일본 10월 로이터 단칸 제조업 · 서비스업 지수 (08:00)
- 일본 8월 기계류주문 (08:50)
- 유로존 8월 산업생산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9월 CPI (21:30)

### <14일(목)>

-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9월 21-22일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03:00)
- 싱가포르 통화청(MAS), 통화정책성명 발표
- 중국 9월 CPI · PPI (10:30)
- 일본 8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9월 PPI (21:30)

### <15일(금)>

- 미국 10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9월 수출입 물가 · 소매판매 (21:30)
- 미국 8월 기업 · 소매재고 (23:00)
- 미국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23:0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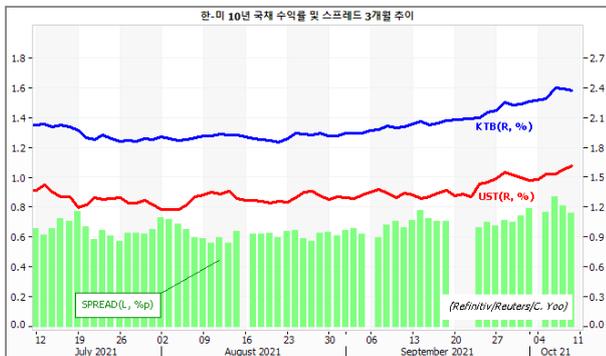
###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전망은 휴간합니다

###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전망은 휴간합니다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분석)-미국 주식 저가 매수 전략, 이번에도 먹힐까?

뉴욕, 10월 07일 (로이터) - 지난 10년간 주가 하락 시 매수하는 전략은 잘 먹혀 왔지만, 최근 주가 하락에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충고가 월스트리트 전략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라이언 데트릭 LPL 금융 수석 전략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S&P500 지수가 최소 5% 이상 하락한 적은 25번이었는데, 이 기간 S&P500 지수는 결국 240%나 올랐고 주가 하락 시 매수하는 전략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이미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S&P500 지수는 5% 이상 하락해 2021년 들어 최대 하락폭을 보인 지난 4일(현지시간) 이후 약 1% 반등했다.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소액 투자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이번 주 들어 하루 평균 12억달러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다.

마르코 콜라노비치 JP 모간 전략가는 6일 고객들에게 보낸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이 "사실상 종식됐다"라면서 경기 민감주 등에 대한 저가 매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연방준비제도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축소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근의 증시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움직임에는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5일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축소하려고 하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들도 4일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 전환하면 S&P500 지수가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스나이더 씨티 US 자산운용 투자 담당자는 미국 연방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문제가 현재 증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단기 리스크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담당자는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전에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중국恒大(恒大·에버그란데)그룹 문제와 에너지 가격 급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15.5% 상승했다.

제이제이 키나한 TD 아메리트레이드 수석 전략가는 "저가 매수 전략이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이었지만, 사람들이 같은 전략을 계속 반복한다면 언젠가는 전략이 실패하는 순간이 온다"고 말했다.

모간스탠리 전략가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연준 통화정책 긴축 전환 시 S&P500 지수가 약 10% 하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긴축 정책 영향으로 경제와 기업 이익이 둔화돼 S&P500 지수가 20% 급락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시나리오에 따르든 성장이 크게 둔화됨과 동시에 테이퍼링이 빨라지면 10% 이상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과거 사례를 보면 한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증시는 계속 오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데트릭 LPL 금융 전략가에 따르면 S&P500 지수가 1-9월 사이 12.5% 이상 오른 경우 남은 기간에도 오른 경우가 80%였다.

장기간 월별 추세를 보면 지금이 매수할 시기일 수도 있다. 9월이 역사적으로 약세장이라면 10월은 전통적인 강세장이기 때문이다.

콜라노비치 JP 모간 전략가는 투자자들에게 신흥 및 선진국 주식 구분 없이 저가 매수에 나서라면서도 고성장·기술주는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 (POLL)-한은 다음 금리 인상은 11월..내년 소폭 추가 인상도 예상

서울, 10월 8일 (로이터) 이지훈·임승규 기자 - 채권시장 전문가 대부분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으나, 다음 달에는 8월에 이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이 국내외 전문가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31명 중 29명은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2명은 10월 1.00%로 인상 뒤 11월 동결을 전망했다.

다만, 이달 동결을 전망한 29명 중 27명이 다음 달 회의의 전망을 제시했는데 23명이 인상을, 4명이 동결을 각각 예상했다.

결국, 최소 29명 중 대다수인 25명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한 것이다.

전문가 대다수는 금통위가 8월에 이미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10월에는 숨 고르기 차원의 금리 동결에 나서지만, 11월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폭넓게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전망을 제시한 23명 중 16명은 기준금리가 내년 말 1.2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고, 5명은 1.50%를 제시했다. 나머지 2명은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을 1.00%로 제시했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0월 회의에서 금통위는 금융 변수 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면서도 "정책 당국의 가계신용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금리 변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시장 안정에 주안을 둔 정책 대응이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금통위는 8월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이후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며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한 명 또는 두 명의 금통위원이 10월에 금리 인상 소수의 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11월 금리 인상을 예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강조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금통위 회의는 11월에 이어 내년 대통령 선거 전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를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장진단)-코스피 완전한 하락세, 연저점 가시권.. 유난히 추운 겨울" 오나**

서울, 10월 6일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서울 주식시장이 지난달 중순 이후 완전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6일에는 간밤 미국 주가지수 급반등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큰 폭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위협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펀더멘털에 비해 낙폭이 과도하다는 '언더슈팅' 진단이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관련 악재에 기업 실적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최소 연말까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 대형 악재는 없지만...**

간밤 미국 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이내 하락 반전해 1.8% 이상 낙폭을 키웠다. 장 중 고점에서는 2.8% 넘게 급락했다.

이날로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월 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3316.08 포인트)에서는 약 12%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이를 연속 상승한 날이 없을 정도로 하락세가 완연해, 코스피 시가총액은 9월 15일 증가와 비교해 160조원 이상 감소했다.

장중 악재성 뉴스가 뚜렷하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시장 전반에 형성된 위험 회피 분위기에 코스피도 동조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이 아시아 시간대서 약세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상승 출발했던 일본과 홍콩 증시도 각각 정치 불확실성, 부동산 관련 우려와 함께 급락 반전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재차 상승해 아시아 시간대서 6월 중순 이후 최고치까지 오름폭을 키웠다. 미국 원유 선물도 7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다.

#### **▲ 누적된 피로**

특히 다양한 대외 악재가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 크게 취약해진 투자심리가 최근 코스피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중국에서는恒大(恒大·에버그란데)그룹 사태의 '시스템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에도 관련 잡음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전력난 사태도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 논쟁을 키우고 있다.

또한, 미국 정치권의 정부 부채한도 협상도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부채한도 유예법안 표결 계획에도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저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Full Story)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부채한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기존의 악재성 재료들이 지속되고,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데 따른 피로감 누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 추운 겨울**

단기적으로 '언더슈팅' 진단도 나오는 가운데 최근 코스피는 장중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도 틈틈이 관측되고 있다.

대신증권, DS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상당수의 국내 증권사들은 단기적인 코스피 하단 지지선을 2900포인트대 중반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계에서는 최소 내년 중국 전력난 해소, 신흥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지속적으로 코스피 상단을 누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최소 4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지수 하방을 추가적으로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반등 모멘텀을 줄 만한 이슈로는 '리오프닝' 내지 '위드 코로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결국 향후 경기 흐름에 있어 핵심 변수는 공급망 병목현상의 완화 여부"라

면서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공급망 병목현상이 풀리고, 막혔던 혈이 뚫리면서 이연 수요 유입과 함께 다시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 **(칼럼)-7년차 한은 총재 발언에 길이 있다**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10월 07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올해만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시그널과 채권시장이 엇박자를 낸 때가 있었나 싶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일관된 시그널을 줄 때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원가에 홀린 듯 다른 해석을 쏟아냈다.

이 총재와 한은 집행부가 세심하게 골라 사용한 표현들이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백가쟁명식 통화정책 전망이 횡행하며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됐다.

이 총재가 처음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5월 금통위 회의를 돌아보자.

당시 채권시장은 고승범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낼 것이라는 루머에 휘둘렸고, 막상 이 총재가 '전원일치 금리 동결'을 발표한 순간부터 랠리를 펼쳤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통화정책 스탠스 전환 시그널을 줬던 이 날 이 총재의 발언은 빠르게 묻혀 버렸다.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가 더해지며 '도비시한 금통위'라는 평가가 뒤따르기도 했다.

이후에도 시장의 통화정책 전망 지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8월 금통위 회의 전까지만 해도 증권사를 중심으로 횡행했던 전망은 올해 한 번, 내년 한 번, 내후년 한 번의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2022년이 돼야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기준금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이 총재가 금융불균형 걱정은 해도 액션은 없을 것"이라는 암묵적 믿음이 채권시장 전반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8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된 후에야 '금통위가 진심'이라는 걸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시장은 최근 들어 한 발 더 나가기 시작했다. 당장 10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부터, 내년 말 기준금리 1.5% 전망까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이 총재가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강조한 데 이어 8월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표현을 했음에도 백투백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다.

#### **▲이 총재의 커뮤니케이션 '원죄'**

이 총재와 한은 집행부 입장에선 답답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총재는 2014년 취임 일성으로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강조했고 이후에도 끊임없는 제도 개편을 통해 통화당국과 시장의 일관성 있는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불신에 이 총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총재 임기 중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서 여러 차례 파열음이 났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취임 직후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인상"이라며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지만,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고 전격 인하를 단행한 이 총재의 행보가 시장의 빈축을 산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당시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과 함께 통화정책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

더구나 이 총재는 임기 초반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면서 강경한 코멘트를 날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번에 금리는 인하하지만 내 의지는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 때문이었다.

2018년에는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 채 1년을 기다리다가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11월이 돼야 정책 조정에 나섰다. 2019년 5월에 "아직 금리 인하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장의 기대감과 거리를 뒀던 이 총재는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인 6월 12일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시장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총재 역시 한 번의 연임을 거쳐 벌써 7년 차다.

시장과의 밀고 당기기에 그만큼 단련돼 있고 메시지 관리도 능숙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코로나 19 확진자 증감과 함께 채권시장의 통화정책 전망 지형이 요동치는 과정에서도 이 총재와 한은 집행부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 ▲한은 총재 메시지에 길이 있다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현재까지 한은 집행부의 메시지는 비교적 뚜렷하다.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는 금리 인상은 한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표현이다. 이는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강력한 힌트기도 하다.

만약 시장 일부의 전망대로 이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한은 집행부가 일관되게 전달해 온 이 메시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백투백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점부터 질서 있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기준점 자체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11월이 맞는다고 보는 이유다.

이 총재를 포함한 한은의 통화정책 관련 메시지 중에 아직 내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박종석 부총재보의 발언부터 이 총재의 7월 국회 발언, 9월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 등에서 모두 '한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이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한은 집행부가 현시점에서 내년 초 추가 기준금리 인상까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심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11월 금통위 회의 때 기준금리가 인상된 후 통화정책 방향 성명문에 추가 인상에 대한 신호가 담길지, 당분간 지켜보자는 언급이 강조될지 현시점에서선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11월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통화당국이 '한 번 더'를 고민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내년 초 금리 인상을 100% 이상 반영한 상황에서 오히려 반대의 시나리오가 가시화됐을 때의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018년 6월에 발표한 한은 창립기념사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경제 여건의 작은 변화나 정책 당국의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불확실성 측면에선 지금이 다른 어느 시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한은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지금이야말로 한은 총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시점이다.

#### (시장진단)-달러/원 1200 원 초읽기..시스템 리스크 징후인가?

서울, 10월 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1190원대로 올라서 1200원대 진입이 임박했다.

6일 환율은 작년 9월 4일 이후 최고치인 1192원 선까지 상승해 또 한 번 고점을 높이고 있다.

국내 9월 수출이 신기록을 쏟아내는 등 국내 경제가 별 탈 없이 회복 경로를 따르고 있지만, 환율은 여러 대외 재료에 흔들리며 쉽사리 상승 압력을 떨쳐내지 못한 채 1200원대를 가시권에 두고 있다.

다만 과거 환율이 1200원대로 상승했을 때는 더욱 더 명확하고 굵직한 대외 충격이 가해져 환율 1200원대에 대한 의미는 적지 않았고 그만큼 리스크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와는 다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 ▲ 과거와 다르다?

지난 10년 동안 달러/원 환율이 1200원대를 상향 돌파했던 때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던 2011년, 중국발 경제 둔화 우려에 휩싸였던 2015-2016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됐던 2019년, 그리고 코로나 공포가 강타한 2020년이다.

결국 이전에는 파급력 있는 대외 충격에 휘말렸고, 이에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까지 불거지며 원화는 달러당 1200 원을 상향 돌파했다. 그렇다 보니 1200 원은 빅 피겨라는 상징성을 넘어 리스크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에도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확대, 미국 통화정책의 긴축 선회, 이에 더해진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과 신용 리스크 확대 우려 등 만만치 않은 재료들이 대거 불거져 원화를 악세 쪽으로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여러 리스크 요인들에도 과거처럼 시장 스트레스가 고조되면서 원화 절하를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는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여러 가지 악재가 중첩돼 있고, 특히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동성 위기 등이 현 환율에 반영돼 왔다고 하지만, 과거 환율이 신용위기 등을 반영해 1200 원을 넘어섰던 그 상황처럼 현재 불안한 상황이나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간 달러지수가 약 4.5% 상승한 반면 원화 절하율은 9.5%를 넘어선다. 기초적인 해외투자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입 규모 확대 등 전반적인 수급 변화로 인해 올 한해 달러/원은 꾸준히 저점을 높여왔고 이런 가운데 최근 여러 대외 리스크를 맞닥뜨리게 되면서 환율이 예상보다 빨리 1200 원대를 보게 됐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20bps 수준에서 변화가 없고, 단기 외화자금 지표인 달러/원 스왑 포인트는 오히려 상승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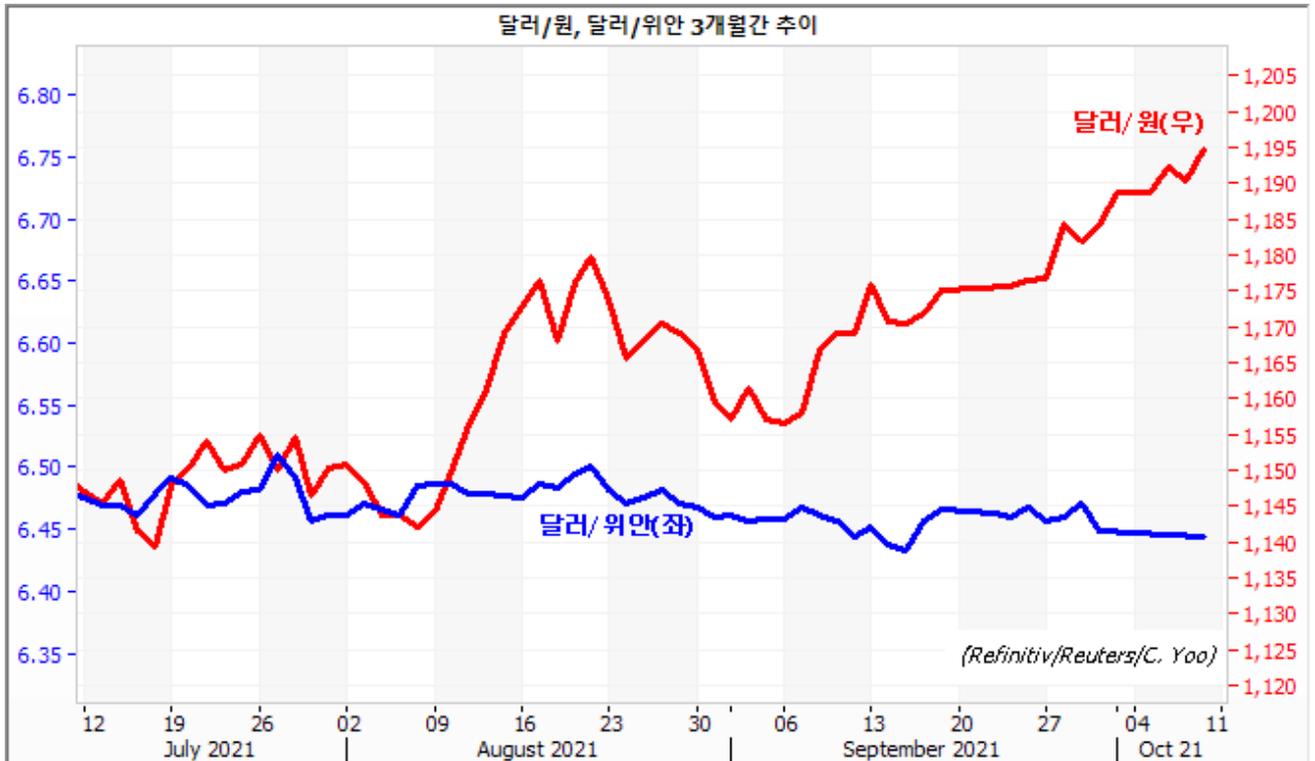
한 은행 외환 딜러는 "과거 시스템 리스크 우려와 연결되며 환율이 1200 원으로 올랐던 상황과는 다르다"면서 "그간 환율이 꾸준히 레벨을 높여온 만큼 1200 원대가 낮은 레벨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환율이 1200 원대로 급등하고 그런 시장 여건은 아니"라면서도 "이후 상황 따라 에너지가 어떻게 축적될지는 지켜봐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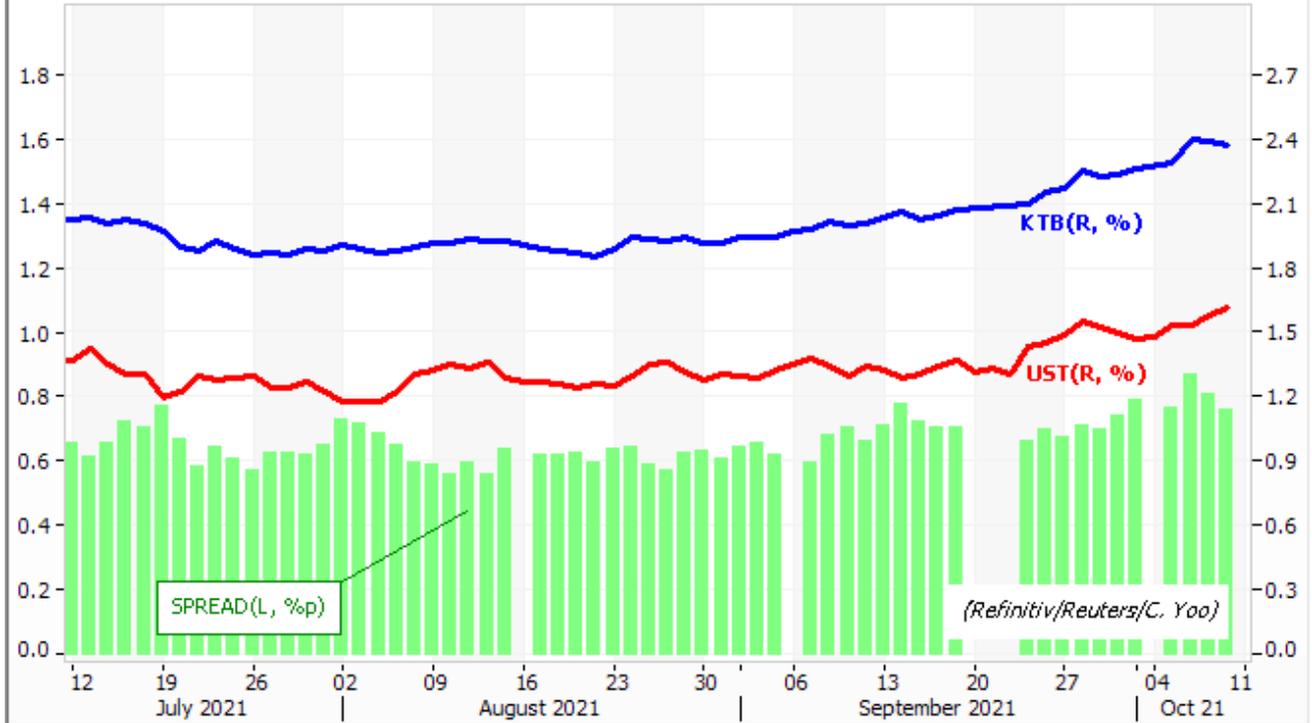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한-미 10년 국채 수익률 및 스프레드 3개월 추이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